

국내 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뒷받침하는 단체



유영선

농어민신문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소 사육 농민여러분의 단체입니다”.

국내 낙농산업은 3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타 산업보다 월등한 양적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선진낙농국이나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경영자인 낙농가를 비롯한 소사육농가는 기술, 자금, 규모 등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낙농육우협회의 활동을 뒤돌아 보면 바로 소사육농가들의 영세한 경영성을 타파하고자 현재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업무이자 칭찬대상이다. 안전한 경제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발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낙농육우협회의 최근 활동상황

을 볼 때 농축산물 가공업의 농림부 이관을 거의 독자적 노력으로 일궈냈고, 우유홍보, 분유재고량 처리 활동, 소값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 소사육농가에게 조사료공급, 낙농육우지에 의한 정보제시 등 협회 고유의 폭넓은 업적이 있었고 또한 현재에도 이같은 업무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반성을 해야 될 일도 있었다. 많은 세월동안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실례로 최근 아직 마무리짓지 않은 낙농진흥법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대정부 건의와 국회교섭 활동은 눈에 띄게 활발히 추진했으나 대낙농가 홍보가 미흡했다. 낙농가들은 낙농진흥법에 관심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개정안내용을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한다. 몇몇 정치적 성향을 가진 낙농관련인들의 발언이 지역전체의 모습인양 오인되고 있는데, 사실 해당지역 낙농가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홍보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홍보가 낙농육우협회의 의무적인 업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낙농육우협회가 아니면 어느누구도 낙농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육우농가의 확실한 손발이 돼야 한

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이 생활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협회의 활동은 국제적으로 정보를 수집, 양축농가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회원조직이 더욱 견고해야 한다. 전국적인 낙농단체는 물론이고 한우를 비롯한 육우농가들을 회원으로 양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원체계를 견고히 넓혀 나가기 위해선 회원이 되면 혜택이 많고 편리하다는 것을 농가들이 느껴야 하는데, 여기에 바로 세분화된 업무인 안정적인 자재공급 안내, TMR사양지도 확산, 축산물 유통라인 안내, 의견수렴에 의한 정책대안 제시 등 공동체 활동이 생산자의견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뿐이 아니다. 낙농육우협회는 축산물가공업체들의 감독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축산물 가공업 무일원화가 근시일내 실행되더라도 경제적이익의 극대화가 목표인 축산물가공업체들에 의해 소비자와의 불신이 싹틀수 있고 이는 수입제품의 시장잠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대가축에 국한되는 단체라기보다 국내 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뒷받침하는 단체. 이것이 곧 한국낙농육우협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